ELIO'S LITTLE DISCOVERIES

The Wobbly Table

흔들흔들 식탁 · 처음 짐작 다시 보기



8세 · Day 060 · 함께 읽기 · 8장면



At breakfast, the little table wobbled. Clink, clink went the two cups.



“It’s broken,” said Elio. “One of the legs must be shorter than the rest.”



They pressed each corner in turn. Only the corner by the window dipped.



Elio folded a scrap of card and slid it under that leg. The wobbling stopped.



Later Mum swept the floor. The card skidded away, and the table wobbled again.



“When did the wobbling start?” asked Mum. “Yesterday,” said Bori, “after the dancing.”



They had slid the rug aside to dance. One leg stood on its thick edge.



No leg was short. They slid the rug back to the door. The table stood still.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작은 식탁과 컵 두 개를 보고, 식탁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야기해 봐요.

함께 읽을 때

엘리오의 짐작(다리 하나가 짧다)과 마지막에 밝혀진 까닭을 나누어 짚어 봐요. 장마다 줄무늬 깔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림에서 확인해요.

생각 나누기

접은 종이로 고친 방법은 왜 오래가지 않았나요? 엄마의 질문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원문에서 찾아봐요.

생활에서

집 안 의자나 탁자가 흔들리는지 함께 살펴보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떠올려 봐요. 무거운 가구는 어른이 옮겨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